

1. 일반적인 재진술 파악하기

- 정보량 축소 : 납득하며 읽기

[01]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①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②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① [01:03~01:05]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Q 1. 색깔이 칠해진 문장을 중심으로 나머지 문장들을 이해하며 읽어 보자.

→

② [01:08]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Q 2. 앞의 문장[01:03~01:05]들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문장을 이해해보자.

→

* 이 지문의 화제는 무엇인가?

→

2. 비유적인 재진술 파악하기

- 같은 말 이해하기

④ [02:06~02:08]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Q 4. '방벽'과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Q 5. [02:06~02:08]의 핵심은 무엇인가?

→

Q.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형벌의 강도를 정해야 한다.

(O, X)

근거 및 해설

→

⑤ [02:10~02:11]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Q 6. [02:09~02:10]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

Q 7.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

2. 비유적인 재진술 파악하기

- 같은 말 이해하기 : 이전 기출 예시

2018.11 [16~19] 목적론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 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 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Q 1. 마지막 문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

Q 2. '헛된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

2015.11B [21~24] 사회 이론(시민 사회론)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Q 1.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

Q.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O, X)

근거 및 해설

→

1995.11 [21~24] 개인과 사회

현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정당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함은 별개의 문제이다. 일찍이 키에르케고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오늘날까지도 사회와 개인에 대한 대립된 견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전부이며 개인은 의미가 없다든지, 개인의 절대성을 주장한 나머지 사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도 모두 정당한 견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개인 속에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발견하며,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을 발견한다. 사회와 개인은 서로 깊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생각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Q 1.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

1. 높은 밀도의 문장 처리하기

- 문장 붙여 읽기

[01]

①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②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Q 1. [01:01~01:02]를 읽고 PCR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01:01~01:02]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

Q 2. [01:05~01:06]를 읽고, 표시된 부분의 '단일 가닥 DNA'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디에 결합하는지 생각해보자.

[01:03~01:04]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

2. 잘못된 사고과정 바로잡기

- 군집화 유의하기

[02]

③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Q 3. [02:01~02:02]를 읽고 2번 문제를 읽고 했던 사고과정을 교정해보자.

[02:01~02:02]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

Q 4. [02:02]에 생략된 과정을 찾아보자.

→

2. 잘못된 사고과정 바로잡기

- 군집화 유의하기 : 이전 기출 예시

2021.11 [26~30] 예약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①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Q 1. 문장을 잘 붙여 읽었다면 '민법상의 권리'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채권'을 떠올려야 한다. 그렇지만 그 두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보서는 안 된다.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와 그렇게 읽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두 개념을 군집화해서 이해해보자.

→

1. 일반적인 재진술 파악하기

- 정보량 축소 : 납득하며 읽기

[01]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①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②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① [01:03~01:05]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Q 1. 색깔이 칠해진 문장을 중심으로 나머지 문장들을 이해하며 읽어 보자.

→ 이익을 저울질하고, 그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익에 따라 행동하니까,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어놓지 않겠네요. 그리고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같은 말이에요.

② [01:08]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Q 2. 앞의 문장[01:03~01:05]들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문장을 이해해보자.

→ 1문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형벌권은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일부 떼어 주고 합의한 결과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내어준 자유를 넘어서는 형벌권의 행사는 당연히 있을 수 없겠죠. 자유를 떼어서 합의한 게 형벌권인데, 내어준 범위를 넘어서면? 내 이익을 위해 합의했는데 그것보다 내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형벌권의 행사)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이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문장은 화제 그 자체를 재진술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의 입장’이라는 점은 이미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화제 그 자체의 재진술로도 볼 수 있겠네요. 화제를 상기시켜주는 문장이기도 한 거예요.

* 이 지문의 화제는 무엇인가?

→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의 생각